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기·산재보험 감면, 개소세 인하 연장

12.7조+@ 세수 어디에 쓰나

홍남기 부총리,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2조 특별용자
실외체육시설 등 10만개 업종 해당
고용보험기금에 1.3조 추가 지원
내일배움카드 대상 54.5만명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2조7000억원 규모의 세수와 예산을 민생 챙기는데 쓰기로 했다. 19조원 수준의 초과 세수 중 5조3000억원을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취약계층 지원에 집행하고, 소상공인 전기료와 산재보험료도 깎아준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 데는 인원·시설 이용 제한으로 매출이 줄었는데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의 경우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손실보상에서 빠진 비대상업종

중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을 대상으로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용자' 2조원을 새로 지원한다.

방역 강화조치로 영업 피해가 컸던 숙박시설과 실외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마사지·안마소 등 10만개 업종이 해당된다.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한 관광기금 용자도 2022년 대출 잔액 3조6000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내린다. 용자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상환도 미뤄준다.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이 줄어든 업체 14만개,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 약 94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2월과 내년 1월 두 달간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최대 20만원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000억원을,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000억원까지 합쳐 총 지원은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실업자들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연말까지 실업급여 지원에 필요한 고용보험기금에 1조3000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실업자 등에게 재취업 기회를 주는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도 54만5000명으로 늘린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 단가도 10만9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상향한다.

치솟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채소류 계약재배 등 자금 4000억원도 추가한다.

1만5000명 대상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 대응인력 2000명 지원 등 돌봄·방역 강화에도 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추계 잘못으로 논란이 있었던 초과

세수 19조원에 대해 홍 부총리는 "5조3000억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쓰고, 2조5000억원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국채 물량 축소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그간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펴왔다.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개소세 인하 조치는 올해 들어 두 차례 연장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소비 진작책으로 차량 구매를 늘릴 수 있도록 또 다시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매했거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3분기 가계부채 37조 늘어 1845조... 또 사상 최대치

전분기 대비 증가폭은 둔화
주담대 20.8조 늘어나 큰폭 확대
대출규제 풍선효과 반대상황 전개

올 3분기 가계빚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기타 금융기관 대출이 줄었지만 예금은행 대출 수요가 늘어나면서다. 은행 대출을 규제하며 풍선효과를 우려했지만 반대 상황으로 전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44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36조7000억원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금융권 가계대출, 카드사 및 백화점 등의 판매신용 잔액을 더한 수치다. 지난해 말 1700조원을 돌파한 이후로도 지속해서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오며 사상 최대치를 다시 한 번 갱신했다. 증가폭을 살펴보면 전분기(43조5000억원)보다 줄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9.7% 뛰며 전분기 대비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은 1744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37조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20조8000억원 늘어나 전분기(17조3000억원)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반면 기타대출 증가폭은 16조2000억원

으로 전분기보다 7조6000억원 줄었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담보대출이 주택 매매 및 전세 거래 관련 자금 수요가 지속되고 집단대출 취급이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전분기에 비해 확대됐다"며 "기타대출은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증가 폭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업권별로는 예금은행의 증가폭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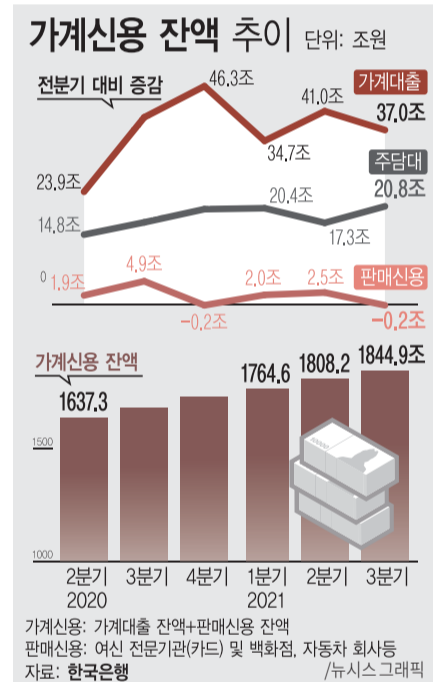
예금은행은 전분기 말 대비 21조1000억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8조2000억원, 기타금융기관 등은 7조7000

억원 각각 늘었다.

은행 대출을 규제하며 풍선효과가 예고됐지만 반대로 전개된 양상이다.

송 팀장은 "예금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는데 올해 들어 주택 거래가 쏙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주택 매매 그리고 주택 전세 수요가 지속된 데 따른 영향이 3분기에 또 지속됐고, 2분기에 비해 기승인된 집단대출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며 "기타 대출은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각 금융기관이 가계 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며 전체 업권에서 증가폭이 축소되는 모습이 공통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판매신용은 100조2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판매신용은 지난 1분기부터 2분기까지 카드사 등 여신전문회사를 중심으로 판매신용



이 늘며 증가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 서비스 소비가 부진해지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온·오프라인 맞춤형 개인쇼핑몰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나만의 맞춤형
개인 쇼핑몰 제공 평생 수익 창출

200여개 흥삼제품
+3만여개 인기상품
+자체상품 등록 판매가능

25년 역사 브레인 TV 방송국소유 핫터그룹

대한흥삼주식회사/㈜핫터라이프 T.010-4480-0045

백신접종 확대에 소비심리 살아났다

한은, 11월 소비자심리지수 107.6
생활형편CSI, 92로 전월과 비슷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2개월 연속 하락하던 소비자심리지수가 백신접종 확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7.6으로 전월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CCSI는 지난 7월과 8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연이어 떨어졌다. 하지만 9월 CCSI 지수 수준이 100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반등해 낙관적인 시각이 나온다.

CCSI는 소비자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

기판단·향후경기전망)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수이다.

기준값 100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말한다.

현재생활형편CSI는 92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가계수입전망도 101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소비지출전망은 115로 전월 대비 3포인트 올랐다. 다만 6개월 뒤를 전망하는 생활형편전망CSI는 97로 전월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 현재경기판단지수는 81로 1포인트 올랐다. 향후경기전망지수는 96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6으로 전월과 비교해 9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여전히 지수 자체가 기준치인 100을 크게 웃돌며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 시각이 우세하다.

/백지연 기자